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7 호 [주제 제 25891호] 주제 107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
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동지,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양
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
과 대학의 일군들이 맞이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난해 2월 평양교원대학
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잘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할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하였다.

주시었으며 개진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펼쳐나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개진공사의 첫날
부터 낮과 밤이 따로없는 줄기찬 루정을
벌집으로써 연간 촉면적 2만 4,100여명

인 평양교원대학의 개진현대화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교육중시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
교원대학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세운 평양시

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분위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혁
소개실, 교육과학전시관, 교육조종실,
다기능교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
과 교수교양실내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968년 9월에 창립된 평양교원대학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올 수 있었
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들
은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과학의 성과를 떠나서는 기대할수 없다고

깊이 명심하고 교수교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칠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평양교원대학이 지난 기간 위대성교양
을 위주로 하는 5대교양프로그램들과
전자교양자료들,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수많은 교재들을
집필하였으며 학생들의 자립적사고활동
에 기본을 두고 과학적으로 강의를 할수
있게 교육에 촉기술을 도입한것을 비롯
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
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교육혁명도 교육
의 학습열의와 학과실력을 높이는데 지향
시키고있다고 하시면서 착상이 좋다고
하시였다.

소학교교수방법실, 자연실험교수
수법실, 어린이지능계발기 숨보금실을
비롯한 모든 교실들을 전공실천실기교
육을 할수 있는 다기능교실들로 잘 꾸
리였다고, 가상교수정황에서와 실지교수
정황에서 수업을 해보는 교수방법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정보, 교육행정지도판리, 교육과정
판리로 이루어진 교육과학행정관리체계
를 자체로 개발한데 기초하여 대학의
교육과학사업전반에 대한 지휘조종을 전
행함으로써 모든 교육행정사업이 학생들
의 학습열의와 학과실력을 높이는데 지향
시키고있다고 하시면서 착상이 좋다고
하시였다.

소학교교수방법실, 자연실험교수
수법실, 어린이지능계발기 숨보금실을
비롯한 모든 교실들을 전공실천실기교
육을 할수 있는 다기능교실들로 잘 꾸
리였다고, 가상교수정황에서와 실지교수
정황에서 수업을 해보는 교수방법이

새롭고 특색 있다고 말씀
하시였다.

학생들이 교원의 기준에
도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방법,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을 결합시키기 위해 꾸린
교실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교수방법도 우월한 교육
방법이라고 하시였다.

체육관의 경기홀을 통
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체육경기는 물
론 정치, 문화행사도 할수
있도록 다기능홀로 꾸린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
였으며 실내수영장에서
대학생들이 수영을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장서능력이 크고 국가망
을 통하여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의 자료들을
열람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유능한 교수들로
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꾸린 도서관이 멋있다고 하시면서 과학
기술전당의 축소판이라고 환하게 웃으시
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3D
화상일력장치와 3D인쇄기, 전자칠판을
비롯한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
비품, 관리운영설비들을 갖춘 평양교원
대학을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
면서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제자들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
진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 면 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교원대학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의 지적두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인 어린시절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현실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힘장이 달라지며 꿩고해진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인 교원대학들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래서 평양교원대학을 품을 넣고 개건현대화하였다고, 각 도들에서도 이곳을 본보기로 하여 교원대학들을 잘 꾸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뿌리가 튼튼하여 충실향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교원의 자질이 높아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교원진영을 척적자들로 잘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실력이 높은 교원들이 배워주는 학생들 속에서 나라의 앞날을 떠나고 생생한 역군들이 배출되게 된다고 하시면서 평양교원대학의 교직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교직원들은 교육사업의 담당자,

세 세기 교육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알고 교육사업에 불타는 애국적 열정과 깨끗한 향심을 바쳐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고 지적능력과 융통능력,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을 개선 완성하며 실험실습의 비중을 둘이고 교육사업을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는데로 확고히 지향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함께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실력을公正하게 평가하여 그들의 학습열의를 적극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은 인재양성의 귀중한 밀거루이라고 하시면서 대학, 학교들을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리는 것과 함께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교원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 학생들이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을 새로 운 과학적 도구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교원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켜 주시고 나라의 중대사를 들보시는 그처럼 바르신 속에서도 대학에 불멸의 명도자우를 세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밀음을 철저히 판찰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청년강국

김일성 - 김정일 주의 청년동맹창립

72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승리, 환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긍지높은 이 땅에 우리의 청년들이 대 한 자부로 더더욱 달아 오르게 하는 뜻깊은 날이 찾아왔다.

김일성-김정일 주의 청년동맹창립 72돐!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 하신 『애국적청년들은 민주주의기 발아래 단결하라!』는 구호로 높이 밟들고 이 나라의 청년들이 수령님께서 창립하여 주신 민주청년동맹에 굳게 결속되어 새 조국건설의 힘찬 발걸음소리를 울려가며 그때로부터 어느덧 일흔두돌기의 날들이 새겨졌다.

우리 나라의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개척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광범한 청년들을 향토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활동하여 청년동맹을 조직하고 청년동맹에서 세기와 세대를 이으며 기적과 위훈을 펼쳐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라.

천리방선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 청년군인들, 당시 부르는 어려고 힘든 전설장들과 새로운 개발지들을 달려나가 영웅청년실험을 성과로 이룬 청년들이 숲을 이루었다.

시급치는 대하에는 그 시원이 있다. 하다니 청춘의 불리는 열정과 무한한 힘으로 조국의 밤은 래일을 알당겨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 힘은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나온 것이다.

그것은 데대로 누리는 수령복에 있다. 정녕 잊을 수 없다.

몇 해전 4월에 이어 9월에도 배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어 우리 청년들을 영웅청년실험의 창조자들로 기워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정도의 자속자속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칠히 그 이름을 배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령해 주신 발전소건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청년동맹에 통제로 딛겨 주신 영예로운 전투파 업이었다.

청년들을 헌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기우시고 당시 후미네, 척후대, 이족부

대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속에서 우리 조국은 세상에 불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일떠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조선청년동맹은 수령님들의 위대한 사상과 혁명한 행동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이며 우리의 청년강국은 수령님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속에 일떠선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입니다.』

청년강국!

이 열이나 가슴부를에 하는 부름인가.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라. 지칠 줄 모르는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으로 부강조국건설의 주요전 구미에서 세기와 세대를 이으며 기적과 위훈을 펼쳐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라.

천리방선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 청년군인들, 당시 부르는 어려고 힘든 전설장들과 새로운 개발지들을 달려나가 영웅청년실험을 성과로 이룬 청년들이 숲을 이루었다.

시급치는 대하에는 그 시원이 있다. 하다니 청춘의 불리는 열정과 무한한 힘으로 조국의 밤은 래일을 알당겨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 힘은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나온 것이다.

그것은 데대로 누리는 수령복에 있다. 정녕 잊을 수 없다.

몇 해전 4월에 이어 9월에도 배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어 우리 청년들을 영웅청년실험의 창조자들로 기워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정도의 자속자속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칠히 그 이름을 배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령해 주신 발전소건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청년동맹에 통제로 딛겨 주신 영예로운 전투파 업이었다.

『청년 중시 사상 만세!』, 『청년 강국』, 『백두정춘』을 비롯하여 전설장의 곳곳마다에서 보게 되는 힘있는 구호들과 표어들에서 달을 밝드는 백두정춘들의 충정의 마음을 소중히 안아보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이 땅에 솟아오른 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물리우는 것이 수없이 많았고,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70년 역사속에는 청년중시사상의 력사,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으로 기울여 력사가 용족되어있다고 궁지에 넘쳐 달콤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참으로 할길혁명선렬들의 넋이 스민 력사의 땅에 용장한 자태를 드러낸 배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 시기부터 창기성을 띠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이족부대로 키우신 청년들이 융도가 열리거나 헌현한 것과 함께 청년들을 키우는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기록화되였다.

일찍이 청년들속에 들어가시여 그

들을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로 두생

대오에 끝이 아기, 언니나 청년들을

우리 청년들이 숲을 이루었다.

시급치는 대하에는 그 시원이 있다. 하다니 청춘의 불리는 열정과 무한한 힘으로 조국의 밤은 래일을 알당겨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 힘은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나온 것이다.

그나마에는 세로운 개발지들을 달려나가 영웅청년실험을 성과로 이룬 청년들이 숲을 이루었다.

시급치는 대하에는 그 시원이 있다. 하다니 청춘의 불리는 열정과 무한한 힘으로 조국의 밤은 래일을 알당겨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 힘은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나온 것이다.

그것은 데대로 누리는 수령복에 있다. 정녕 잊을 수 없다.

언제나 땅을 따라 끝바로 나아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비범한 명도가 있었기에 우리 청년동맹은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빛날수 있게 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송고한 이 뿐만 아니라 끝을 외워볼수록 두

해전 8월의 적동적인 회복이 삼삼히 어려운데다.

온 나라 청년동맹원들의 헌결같은 헌원을 반영하여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 주의 청년동맹』으로 명명할 때 대한 경정서가 채택되었던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청년들을 위한 력사적인 대회를 소집

하도록 하여 주시고 몸소 대회장에 나오

시여 청년동맹에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기발을 직접 수여해 주시고

뜻깊은 열성도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회 같은 사령과 명은 이 땅의

수백만 청년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청년인민적인 품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귀국에서 편차총동사고들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는 출판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피해자유가족

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귀국정부와 인민이 이번 사고로 인한 후파를 하루빨리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김영남동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프레토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쟈코브 게들레이홀레키사 주마각하

나는 최근에 귀국에서 편차총동사고들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는 출판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피해자유가족

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귀국정부와 인민이 이번 사고로 인한 후파를 하루빨리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남

주체 107(2018)년 1월 13일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운 인민사랑을 실장으로 제작하고 회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펼칠 있게 벌리고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하는 문제는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생산자대 중속에 깊이 들어가

전환을 일으켜나갈때 대하여 주민

가르침심을 높이 끌고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선동사업을

이미 가지 형식과 방식으로 벌리고

있다.

대중의 실장에 불을 지펴는 전공

적인 사상사업으로 하여 공장에서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사적교양신과 연혁소개실에

대한 창관을 통하여 공장을 돌아

보시면서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영예로운 승리자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

활에 적극 이 바지 하도록 하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행도업적과 끄거

운 힘 풍이 세 차례 일어난 지고 있다.

본사기자 채희성

기
행

어디서나 울리는 한목소리 - 자기 힘이 제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끄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들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연탄군은 황해북도의 북서부 황주현 상류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산골마을이다.

옛날에는 물이 많아 물보라리고 불렀다고 한다. 물사랑밖에 없던 연탄군이 물보라로 알렸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지역역점으로 되어 전번의 새 모습을 열쳤다.

지방산업창마다 제품들이 풍광 나오는데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알려져 제품들도 있다. 군 사람들은 자랑이 아닙지만 아니다.

파연 무슨 힘이 이 자그마한 산골마을을 흥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낄 것을 여기에 쓴다.

* * *

연탄군 사람들은 우리 생활이 아직 그리 풍족하지 못해도 군심 걱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군을 끌어온 군인민위원회 일군인 장수일동무는 그 비결에 대해 단 한마디로 말했다. 막내에게 먹여살리기로 나온 웃음을 향로 칠로 친다고.

이 말은 우리가 군에서 제일 처음 들어온 문화회관에서부터 즐겼다. 2층으로 된 문화회관은 도시의 풍물이 못지 않았다. 창랑하고 대단한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성과는 보고 듣고 느낄 것을 여기에 쓴다.

유압식 핵융전로스와 같은 목제 가공설비들의 창안제작, 각종 규격의 핵판제작기술 개발, 이것이 지난해 조합이 이룩한 성과이다. 원수원에 끌어온 군인민위원회 일군인 장수일동무는 그 비결에 대해 단 한마디로 말했다. 막내에게 먹여살리기로 나온 웃음을 향로 칠로 친다고.

조합에는 절약창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목제 가구제품들도 제작한다.

자기들을 가지고 행복을 가꿔 가는 이들의 두정정신과 기풍이 마음에 들었다.

1월의 바람은 맵 있지만 우리는 내버려두지 말려 리들에 나가보기로 작정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뛰어넘는 신홍리로 향한 길에서 우리는 잔나루,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룬 수림을 볼 수 있었다. 역시 산림복구전투에서 모범인 군이 다른가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시집간 딸네 집에서 온다. 연탄장맛이 좋다고 해서 종종 보내주곤 한다는 로인의 익살에 웃음을 먹더니 끊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군이 티를 뚫고 허리를 펴는 1호발전소를 살피면서 험준한 동굴에서 이쪽에는 험준한 동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신홍리 수곡동에 이르니 밭진 소가 보였다.

횡수원에 계단식으로 건설된 연탄군 소형발전소들의 딸마다 들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전소

연 탄 군

자율 비롯한 가구제품들은 군가구생산협동조합에서 만든것이었다. 예전에 든든해보이는데다가 현대에도 있다. 그 제품은 만든 조합에 가보았을 때 좋은 충동이 생겼다. 하여 우리는 그곳에도 들어보았다.

초록보관리위원회는 말했다.

『우리 조합뿐 아니라 군내 다른 단위들도 성과가 큽니다. 저희는 군가구생산협동조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통풀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며 끝이 없이 비약해 악 한다는 그의 말을 피새기며 우리는 조합을 나섰다.

생산현장들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같았지만 그곳에도 들어보았다.

최액보관리위원회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는 지난 기간 국수집, 은데리, 막내, 유치원 등 군의 여러 단위들에 많은 가구제품들을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군수민족에서 생산되는 소수만은 대상들에 6.0여종에 1000여점의 가구제품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 성과는 그곳에도 들어보았다.

기초식품매대에서는 주민들

과 자세도 우렁것인데다가 버리는것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좋은가.

최액보관리위원회는 말했다.

『우리 조합뿐 아니라 군내 다른 단위들도 성과가 큽니다. 저희는 군가구생산협동조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통풀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며 끝이 없이 비약해 악 한다는 그의 말을 피새기며 우리는 조합을 나섰다.

조합가끼에게 음식료품상점이 있었는데 무척 흥미로운 것은 같았지만 그곳에도 들어보았다.

기초식품매대에서는 주민들

에게 새해 첫달 간장, 된장장을 공급하고 있다. 판매원의 말에 의하면 군식료품장에서 생산된 초기식품을 세대들에게 탈락한 가족들이 이를 구매하고 있다.

자기들을 가지고 행복을 가꿔 가는 이들의 두정정신과 기풍이 마음에 들었다.

1월의 바람은 맵지만 우리

는 내버려두지 말려 리들에 나가보기로 작정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뛰어넘는 신홍리로 향한 길에서 우리는 잔나루,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룬 수림에서 눈밭의 지력을 높이고 어려 푸른들의 우량률증

을 받아들이며 생육기밀을 일당

같이에서 연유소비량을 소

나들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신성 2호』호를

리용하여 만든 발효비빔밥을

5000원을 도입했는데 밥

같이에서 연유소비량을 훨씬

줄었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자기

힘을 끌어모아 축제를 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여기에는 저마다 군인민족의 정신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이 힘을

풀고 힘을 키워온 것이다.

그들이 힘을 키워온 것이다.

